

일라이저 - 넘버 포

노예제

Jeff Pippenger

2023-10-01

엘리야의 증언은 그가 3년 6개월 동안 그의 말이 아니면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선포할 때 시작된다.

길르앗 주민 중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내가 그 앞에서 있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수년 동안 내 말이 없으면 이슬도 비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열왕기상 17:1

그 3년 반은 538년부터 1798년까지의 두아디라의 역사를 상징한다. 1798년에 가뭄 기간이 끝날 때 엘리야가 아합을 갈멜로 불러 모았다. 첫째 천사들의 기별은 1844년 10월 22일에 하나님의 심판 때를 선포했다. 첫째 천사의 기별은 아합에게 온 이스라엘을 갈멜로 모으라고 한 명령이었다.

아합이 엘리야를 보자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가 너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힌 것이 아니라 너와 네 아버지의 집이라.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명령을 버리고 네가 바알들을 따랐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제 사람을 보내어 온 이스라엘을 갈멜 산으로 내게 모으고, 바알의 선지자 사백오십 명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숲의 선지자 사백 명을 모으라. 이에 아합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고, 선지자들을 갈멜 산으로 모았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의견 사이에서 머뭇거리겠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면 그를 따르라. 하니, 백성은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않았다. 열왕기상 18:17-21.

엘리야 시대에 온 이스라엘이 갈멜로 모였는데, 그것은 계시록 3장의 세 교회가 함께 모였던 때의 윌리엄 밀러의 역사를 상징하였다. 이세벨의 박해를 피하려 538년에 처음 광야로 도피했던 두아디라 교회로 대표되는 그 교회는 윌리엄 밀러로 대표되는 엘리야의 기별과 대면하게 될 세대로서 광야에서 나왔다. 그때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입을 열어 1,260년 동안 그 교회를 대적하여 보내졌던 박해의 홍수를 삼켜 버렸다.

그리고 땅이 여자를 도왔고, 땅이 입을 벌려 용이 자기 입에서 쏟아낸 물을 삼켜 버렸다. 요한계시록 12:16.

예언에서 '한 나라의 말함'은 그 나라의 입법부와 사법부의 행위를 의미하며, 1789년 미국은 미합중국 헌법이라는 신성한 문서를 제정하여 유럽의 왕들과 배교한 가톨릭 교회의 박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권리와 자유를 보장했다.

"국가가 말하는 것은 그 입법 및 사법 당국의 행위이다." 대쟁투, 443.

1789년에, 성경 예언의 여섯째 왕국으로서의 미국의 예언적 역할이 시작되기 바로 직전에, 미국은 어린양처럼 말했지만, 일요일 법령 때에는 용처럼 말할 것이다.

또 내가 보니 땅에서 올라오는 다른 짐승이 있는데, 그에게 어린 양 같은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요한계시록 13:11.

땅의 짐승의 시작과 끝은 그것이 말하는 것으로 표시된다. 1798년에 아합은 온 이스라엘을 갈멜산으로 불러 모았고, 거기서 엘리야는 지켜보는 이들 앞에서 히브리인의 하나님과 이세벨의 신 중 누가 참 하나님인지 증명하기 위한 시험을 제시하려 했다. 이세벨은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수풀의 선지자 400명을 거느리고 있었다. 거짓 신 바알은 남신이었고, 거짓 신 아스다롯은 여신이였다.

그 두 부류의 거짓 선지자들은 교회와 국가의 결합을 나타낸다. 예언에서 남자와 여자가 함께 나타날 때 여자는 교회를, 남자는 국가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엘리야는 여신과 남신이라는 거짓 신들, 또한 아합과 이세벨의 결혼으로 상징된 교회와 국가의 불경한 결합과 맞섰을 때 850대 1로 수적으로 열세였다. 아합과 이세벨이 보여 준 교회와 국가의 모습은 공화주의의 뿔의 부패를 나타내며, 바알과 아스다롯은 개신교의 뿔의 부패를 나타낸다.

문제는 요한계시록 2장에서 두아디라가 상징하는 부패한 종교에 대해 엘리야가 제기한 항의였다. 엘리야는 프로테스탄트를 대표했는데, 프로테스탄트란 로마에 항의하는 사람을 뜻하기 때문이다. 엘리야의 항의는 부패한 국가와 부패한 교회의 불경한 동맹으로 이루어지는 정교유착에 대한 항의를 의미한다.

그러나 네게 몇 가지 책망할 것이 있느니라. 네가 자칭 여선지자라 하는 그 여자 이세벨이 가르치며 내 종들을 미혹하여 음행하게 하고 우상들에게 바친 것들을 먹게 하도록 내버려 두었도다. 또 내가 그녀에게 그 음행을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나, 그녀는 회개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그녀를 침상에 던질 것이요, 그녀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자기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리라. 요한계시록 2:20-22.

먹는다는 것은 당신이 받아들이는 메시지를 상징하며, 우상들에게 바쳐진 메시지는 가톨릭의 교리, 곧 가증스러운 우상 숭배의 바로 그 상징을 나타낸다. 하나님의 백성은 암흑시대에 가톨릭의 많은 이교적 교리들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특히 태양 숭배를 받아들였다.

음행은 불법적인 관계이며, 예언적으로는 헌법이 금지하는 것의 핵심, 곧 교회와 국가의 결합을 상징한다. 아합은 이세벨과 불법적인 관계에 있었는데,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는 이방 공주와 결혼해서는 안 되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는 세례 요한을 엘리야라고 하였고, 요한도 자기 형제의 아내인 헤로디아와 결혼한 헤롯을 책망하며 같은 거룩하지 않은 관계를 지적했다.

헤롯은 자기 형제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 때문에 요한을 붙잡아 결박하고 옥에 가두었다. 이는 요한이 그에게 "네가 그녀를 아내로 취하는 것은 율법에 맞지 않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14:3, 4.

엘리야의 아합과 이세벨과의 대결은, 두 관계가 모두 교회와 국가의 불법적 결합을 나타냈기 때문에, 요한의 헤롯과 헤로디아와의 대결을 예표했다. 그들은 함께 교황권(이세벨과 헤로디아), 유엔을 대표하는 열 왕(아합과 헤롯), 그리고 거짓 선지자를

대표하는 미국(갈멜의 거짓 선지자들과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에 맞서는 십사만 사천의 엘리야의 메시지를 대표한다.

갈멜에서의 예언적 정황에는 정교 분리의 원칙을 명시한 미국 헌법을 엘리야가 옹호하는 것이 포함된다.

아합이 엘리야를 보았을 때 아합이 그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너냐?" 그가 대답하였다.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힌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은 너와 네 아버지의 집이다. 너희가 여호와의 계명을 버렸고 내가 바알들을 따랐기 때문이다." 열왕기상 18:17, 18.

헌법은 공화주의와 개신교라는 두 뿔이 서로 항상 분리되어 있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미국이 마침내 용처럼 말하게 될 때는, 미국의 배도한 교회들이 권력을 장악하여 배도한 정부와 결합할 때라고 밝힌다.

그러나 '짐승을 위한 우상'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형성될 것인가? 그 우상은 두 뿔 가진 짐승에 의해 만들어지며, 짐승을 위한 우상이다. 또한 '짐승의 우상'이라고도 불린다. 그러므로 그 우상이 어떤 것이며 어떻게 형성될 것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짐승 자체, 곧 교황권의 특성을 연구해야 한다.

초대 교회가 복음의 단순함에서 벗어나 이방의 의식과 관습을 받아들여 부패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잃었다. 그리고 백성들의 양심을 통제하기 위해 세속 권력의 지지를 구했다. 그 결과가 교황권이었다. 곧 국가 권력을 장악하고 그것을 자신의 목적을 추진하는 데, 특히 '이단'을 처벌하는 데 사용한 교회였다. 미국이 짐승의 형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종교 권력이 시민 정부를 그렇게 통제하여 국가의 권위가 교회의 목적을 이루는 데에도 사용되도록 해야 한다. 위대한 논쟁, 443.

갈멜산의 엘리야는 밀러주의자들의 사역을 표상했으며, 밀러주의자들은 가톨릭의 영향에서 최근에 벗어났으나 첫째 천사의 빛을 거절함으로써 로마로 돌아가기를 선택한 자들과 대조되어 참된 선지자로 세워졌다. 그러므로 1844년 봄의 둘째 천사의 기별은 개신교 교단들을 바벨론의 딸들로, 그리고 밀러주의자들을 참된 개신교의 뿔로 규정하는 것이었다.

하나님께서 고대 이스라엘을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이끌어 내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을 때, 그분은 하늘에서 내린 만나로 시작되는 점진적인 시험 과정을 시작하셨다.

"우리 위에 지나간 시대들의 축적된 빛이 비치고 있다. 이스라엘의 망각에 대한 기록은 우리의 깨우침을 위해 보존되어 왔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나라와 족속과 언어 가운데서 자신을 위하여 백성을 모으시려고 손을 펴셨다. 재림 운동 가운데 그분은 자기의 유업을 위하여 역사하셨으니, 이는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 내실 때 이스라엘을 위하여 역사하신 것과 같았다. 1844년의 대실망 가운데 그분의 백성의 믿음은 홍해 앞에서 히브리인들의 믿음이 그랬던 것처럼 시험을 받았다." 증언, 8권, 115, 116쪽.

1844년 10월 22일의 실망은 하늘 성소에 대한 이해로 이어졌고, 그 이해는 이어서 안식일의 시험을 제시했는데, 이는 만나의 시험이 고대 이스라엘에서 열 가지 시험 가운데 첫 번째가 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였다.

1847년에 메인주 톱삼에서 형제들이 안식일에 모였을 때, 주님께서 내게 다음과 같은 이상을 보여 주셨다.

우리는 비범한 기도의 영을 느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 위에 임하셨다. 우리는 매우 기뻐다. 곧 나는 세상 것에 대한 감각을 잃고 하나님의 영광의 환상에 사로잡혔다. 나는 한 천사가 신속히 내게로 날아오는 것을 보았다. 그는 재빨리 나를 땅에서 거룩한 성으로 옮겨 갔다. 그 성 안에서 나는 성전을 보았고, 그 안으로 들어갔다. 나는 문을 하나 지나 첫째 휘장 앞에 이르렀다. 그 휘장이 걷히자 나는 성소로 들어갔다. 거기서 나는 향단과 일곱 등잔이 있는 등대와 진설병이 놓인 상을 보았다. 성소의 영광을 본 뒤, 예수께서 둘째 휘장을 들어 올리시니 내가 지성소로 들어갔다.

지성소에서 나는 언약궤를 보았다. 그 윗부분과 양쪽은 순금으로 되어 있었다. 궤의 양 끝에는 아름다운 그룹이 있었고, 그들은 그 위로 날개를 펼치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은 서로를 향하고 있었으며,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천사들 사이에는 금향로가 있었다. 천사들이 서 있는 언약궤 위에는 지극히 찬란한 영광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보좌처럼 보였다. 예수께서 언약궤 곁에 서 계셨고, 성도들의 기도가 그분께 올라오면 향로의 향에서 연기가 피어올랐고, 그분은 그 향의 연기와 함께 그들의 기도를 그분의 아버지께 올리셨다. 궤 안에는 만나가 담긴 금항아리와, 싹이 난 아론의 지팡이, 그리고 책처럼 서로 맞물려 접히는 돌판들이 있었다. 예수께서 그것들을 여시자, 그 위에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기록된 십계명을 보았다. 한 돌판에는 네 계명이, 다른 돌판에는 여섯 계명이 있었다. 첫째 돌판의 네 계명은 다른 여섯 계명보다 더 밝게 빛났다. 그러나 넷째 계명, 곧 안식일 계명은 그 모두보다 더욱 빛났다. 이는 안식일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존귀히 하여 지키도록 구별되었기 때문이다. 거룩한 안식일은 영광스러워 보였고 - 그 둘레에는 영광의 후광이 둘러 있었다. 나는 안식일 계명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님을 보았다. 만일 그렇다면 다른 아홉 계명도 그렇게 되었을 것이며, 우리는 넷째 계명을 범하듯이 다른 모든 계명도 마음대로 범해도 된다는 말이 된다. 나는 하나님이 안식일을 바꾸지 않으셨음을 보았다. 그분은 결코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황은 그것을 한 주의 일곱째 날에서 첫째 날로 바꾸었다. 이는 그가 때와 법을 바꾸려고 하였기 때문이다. 초기 저술, 32.

1798년에 개신교도들이 암흑기에서 벗어나고 다니엘서의 봉인이 풀렸을 때, 성경 예언의 여섯째 왕국, 곧 요한계시록 13장의 두 뿔 가진 땅의 짐승이 예언의 역사 속으로 행진을 시작했다. 개신교는 성경이라 불리는 거룩한 문서 위에 세워졌고, 공화주의는 헌법이라 불리는 거룩한 문서 위에 세워졌다. 하나님은 광야의 교회를 암흑기에서 이끌어내셨지만, 마치 고대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때에 안식일 계명을 잊었던 것처럼 안식일 계명이 잊혀져 있었다.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으러 가는 길에 홍해를 건넜듯이, 현대 이스라엘은 율법이 다시 한 번 드러날 1844년 10월 22일을 향해 대서양을 건넜다. 주님은 다시금 자신의 율법과 예언적 계시의 보관자이며 개신교의 유산을 계승할 한 백성을 일으키고 계셨다. 고대 이스라엘은 그분의 율법의 보관자로서의 사명을 상징하는 십계명의 두 돌판을 받았고, 현대 이스라엘은 그분의 예언의 말씀의 보관자로서의 사명을 상징하는 하박국서의 두 판을 받았다.

현대 이스라엘은 세상에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면서 두 벌의 두 돌판을 모두 지녀야 했는데, 이는 개신교의 사명을 이어받은 자들이 선포하는 기별이다. 암흑기에서 나온 개신교는 옛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널 때 그랬던 것처럼 그때에는 불완전했다. 개신교는 '성경, 오직 성경'을 표방했지만, 로마 가톨릭의 이교적 교리(우상에게 바친 것들)를 수세기 동안 받아들여 하나님의 말씀을 불완전하게 이해하고 있었다. 하나님은 참된 개신교인이 '율법과 선지자들'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대표하기를 의도하셨는데, 이 '율법과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사역과 하나님의 품성을 함께 나타내는 두 벌의 두 돌판을 의미한다. 첫째 천사의 사명은 그의 율법과 그의 예언의 말씀 둘 다의 보관자가 되는 참된 개신교 백성을 일으키는 것이었다.

“하나님께서 옛 이스라엘을 부르셨던 것처럼 오늘날 그분의 교회를 부르셔서 이 땅에서 빛으로 서게 하셨다. 진리의 강력한 도끼, 곧 첫째·둘째·셋째 천사의 기별로 그들을 교회들과 세상으로부터 분리하여 자신께 거룩히 가까이 오게 하셨다. 그분은 그들을 자신의 율법의 수탁자로 삼으시고 이 시대를 위한 예언의 위대한 진리들을 그들에게 맡기셨다. 옛 이스라엘에게 맡겨졌던 거룩한 신탁처럼, 이것들은 세상에 전해져야 할 거룩한 신탁이다. 요한계시록 14장의 세 천사는 하나님의 기별의 빛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대리자로 나아가 온 땅 구석구석에 경고를 외치는 사람들을 대표한다.” 증언, 5권, 455쪽.

두 쌍의 판의 보관자로 지목된 자들이 선포해야 할 경고는 가톨릭의 표를 받지 말라는 것이다. 그 항의는 아합과 이세벨의 불법적인 관계에 반대하는 것으로, 갈멜산에서 엘리야에 의해 상징되었다. 시내 산에서 두 돌판이 주어진 것은 1842년부터 1849년에 이르는 역사 속에서 하박국의 천으로 된 두 판이 주어지는 것을 예표했다. 하박국의 두 판은 하나님과 그의 개신교 백성 사이의 언약 관계의 상징이다. 그 판들을 거절하는 것은 고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법을 거절하는 것과 같다.

밀러주의자들은 지성소에 들어가 안식일의 빛을 받았지만, 시험의 과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동시에 공화주의의 별 역시 같은 역사 속에서 전개되고 있었다. 그리고 두 별은 1863년에 함께 행진하는 가운데 하나의 이정표에 이르게 될 것이었다.

밀러의 엘리야 메시지는 개신교의 별을 확립하려는 의도 아래 점진적인 정화 과정을 낳았고, 같은 역사 속에서 공화주의의 별도 점진적인 정치 발전 과정에 관여했다. 두 별은 같은 땅의 짐승 위에 있으므로, 그 땅의 짐승의 전 역사에 걸쳐 보조를 맞추어 함께 나아가야 한다.

땅의 짐승의 공화주의의 별의 첫 번째 예언적 특징은 1789년에 헌법을 효력 있게 시행한다고 선포한 행위였다. 1798년(다니엘서의 봉인이 열린 마지막 때)에 땅의 짐승은 성경 예언의 여섯째 왕국으로서 처음으로 말했다. 1798년은 미국이 성경 예언의 여섯째 왕국으로서 시작된 때였고, 1798년에 땅의 짐승의 역사 시작에서 일어난 그 말함은 여섯째 왕국이 마지막으로 말하게 될 때를 예표하였으며, 그 때는 용의 음성으로 표현된다. 1798년에 미국에서 공화주의의 별이 통과시킨 법들을 고려할 때, 우리는 미국이 용 같이 말할 때 일요일 법령과 결부되어 제정될 법들의 예표를 보게 될 것으로 기대해야 한다. 다음의 네 가지 법을 살펴보면, 1798년에 통과된 그 네 가지 법이 알파와 오메가의 예언적 표식을 지니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1798년, 미국은 '외국인 및 선동법'으로 알려진 몇 가지 중대한 법률을 제정했다. 이 법들은 연방당이 장악한 의회에서 통과되어, 미국의 제2대 대통령이자 조지 워싱턴의 전 부통령이었던 존 애덤스 대통령의 서명으로 법률이 된 네 가지 법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귀화법: 이 법은 이민자가 미국 시민이 되기 위한 거주 요건을 5년에서 14년으로 연장했다. 이는 주로 야당이던 민주공화당을 자주 지지하던 최근 이민자들의 영향력을 억제하려는 데 목적이 있었다.

외국인 우호법: 이 법은 평시에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는 비시민권자를 대통령이 추방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또한 대통령이 위험하다고 판단하는 모든 비시민권자를 구금하고 추방할 수 있도록 했다.

적국인법: 이 법은 미국과 전쟁 중인 국가의 국민을 체포·구금하고 추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이는 1790년대 후반의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예방적 조치로 제정되었다.

선동법: 이는 외국인 및 선동법들 가운데 가장 논란이 많은 법이었다. 이 법은 정부 또는 그 공직자를 명예훼손하거나 불명예에 빠뜨릴 의도로 정부나 그 공직자를 상대로 '허위, 추문적, 악의적인' 글을 출판하는 행위를 형사범죄로 규정했다. 비판자들은 이를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으로 보았다.

외국인법과 선동법은 매우 논란이 되었고, 이 법들이 기본적인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고 자신들의 정당을 겨냥한다고 믿은 민주공화당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그들은 이 법들이 언론과 출판의 자유를 보장하는 수정헌법 제1조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이러한 법은 1800년 선거에서 역할을 했고, 토머스 제퍼슨과 민주공화당이 대통령직과 의회를 차지하면서 선동법이 폐지되었다.

민주공화당은 이러한 법들이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믿었고, 또한 그 법들이 상대 정당을 겨냥하고 있다고도 믿었다. 이 법들이 폐지되었거나 이후에 효력이 만료되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알파와 오메가는 시작에서 끝을 보여 준다. 이 법들이 제정되었거나 '말로' 법으로 만들어진 역사에서, 연방당은 민주공화당이라 불리는 정당의 반대를 받았다. 민주공화당의 변천은 궁극적으로 공화당을 탄생시킨다. 주로 노예제 반대 입장을 바탕으로 결집한 정당.

역사가들은 1863년을 노예제 문제를 둘러싼 남북전쟁의 한복판에 해당하는 시점으로 지목한다. 1863년은 또한 개신교의 뿔의 새로운 기수들에게 이정표였는데, 그들은 그때 천사들이 밀러에게 준 최초의 시간 예언(레위기 26장의 '일곱 번' 예언)을 거부했다. 레위기의 바로 앞 장에 제시된 노예제 법들을 바탕으로 '일곱 번'의 예언이 세워져 있다는 사실이 단순한 우연일 뿐일까? '일곱 번'으로 규정된 '저주'는, 25장의 언약의 법들을 어길 경우, 이스라엘이 홍해에서 여정을 시작할 때 벗어나게 되었던 그 노예 상태로 되돌아가며 자기 역사를 끝내게 되리라는 약속이었다.

1798년부터 1863년까지 민주공화당이라는 정치 정당은 일련의 숙청이나 동요를 겪었다. 1798년 이후, 특히 1840년 8월 11일 이후부터 1863년까지 밀러파 운동은 일련의 숙청과 동요를 겪었다.

미국의 초기 정당 가운데 하나였던 민주공화당은 오늘날 존재하는 현대의 공화당으로 직접적으로 변모한 것이 아니다. 대신 시간이 흐르면서 일련의 변화와 분열을 겪었고, 결국 공화당이 등장하기 전에 서로 다른 여러 정당의 형성으로 이어졌다.

토머스 제퍼슨과 제임스 매디슨과 자주 연관된 민주공화당은 18세기 말 연방당에 대한 대응으로 창당되었다. 민주공화당은 헌법의 엄격한 해석, 주(州)의 권리, 그리고 농업적 이해관계를 지지했다.

그러나 1820년대에 이르면 민주공화당은 지역적·이념적 기준에 따라 분열되기 시작했다. 주된 분열은 제임스 먼로의 대통령직에 대한 강력한 반대 세력이 부족했던 '좋은 감정의 시대'(1817~1825) 동안에 일어났다. 이러한 정치적 평온의 시기는 민주공화당의 쇠퇴에 기여했다. 결국 이 당은 여러 파벌로 갈라져 다음과 같은 정치 세력들로 분화했다:

민주당: 1829년에 제7대 대통령이 된 앤드루 잭슨의 지지자들이 민주당을 결성했다. 잭슨주의 민주당원들은 강력한 행정부, 서부로의 팽창, 그리고 백인 남성의 선거권 확대를 지지했다.

전국공화당: 이 정당은 앤드루 잭슨의 대통령직에 대한 대응으로 등장했으며, 이후 다른 반(反) 잭슨 계파들과 합쳐져 휘그당이 되었다. 전국공화당은 일반적으로 강력한 연방 정부와 경제 발전을 더 지지했다.

반프리메이슨당: 1820년대에 등장한 단명한 정당으로, 비밀주의적인 프리메이슨단의 영향력에 대한 우려에 주로 대응해 생겨났다. 이 정당은 일부 옛 민주공화당 출신을 흡수했다.

휘그당: 1830년대에 결성되어 옛 내셔널 리퍼블리칸, 안티메이슨, 그리고 다른 반대파 세력을 포괄했다. 이들은 잭슨주의 정책에 반대하고, 강력한 연방 정부를 지지하며, 산업과 경제 발전을 촉진하는 것으로 특징지어졌다.

현대의 공화당은 노예제를 둘러싼 지역적 긴장이 고조되자 이에 직접 대응하기 위해 1850년대에 창당되었다. 공화당은 휘그당 출신, 반노예제 성향의 민주당원, 자유토지당원, 그리고 새로운 영토로의 노예제 확장에 반대하는 다른 이들을 끌어모았다. 공화당의 첫 대통령 후보였던 존 C. 프리먼트는 1856년 선거에 출마했으며, 그 당의 첫 당선자인 에이브러햄 링컨은 1860년에 선출되었다. 따라서 공화당은 민주공화당 전통과는 별도로 등장했고, 미국 정치사에서 뚜렷이 구별되는 독자적 궤적을 걸었다.

1860년에 공화당은 첫 대통령을 선출했다. 그 당은 노예제에 반대하는 여러 정당의 연합을 기반으로 했다. 1863년에 노예해방선언은 노예제를 "말"로 소멸시켰다. 1863년에 공화당의 뿌, 곧 당시 공화당으로 대표되던 세력은 노예제를 "말"로 소멸시켰고, 반면 개신교의 뿌은 운동으로서의 성격을 잃고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가 되었다. 밀러파의 운동은 1863년 5월에 법적·공식적으로 끝났고, 그해에 모세의 맹세, 곧 노예에 관한 예언은 거부되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시점에서 예언자 다니엘이 '모세의 맹세'라고 부른 것에 대한 간단한 개요를 제공하는 것이 유익할 수 있다.

정녕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심지어 떠나 주의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저주와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가 우리에게 쏟아졌나니, 이는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음이라. 다니엘 9:11.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던 중 가브리엘과 다른 천사들의 인도를 받았던 윌리엄 밀러는 먼저 레위기 26장의 "일곱 때"로 인도되었다. 밀러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성경 연구를 창세기에서 시작했으며, 그러므로 당연히 다니엘서 8장 14절의 2,300년에 이르기 훨씬 전에 레위기에 이르렀다. 그는 오로지 성경과 크루든의 콘코던스만 사용했다.

크루든의 콘코던스에는 훗날 킹 제임스 성경의 영어로 번역된 히브리어나 그리스어 단어들에 대한 참조가 없다. 밀러는 자신이 연구하던 본문의 '문맥'을 성경의 단어나 본문을 이해하는 데 지침으로 삼았다. 그가 '일곱 번'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레위기 26장의 '일곱 번'의 문맥이 25장에 있다는 것을 매우 쉽게 알 수 있다.

제25장은 땅의 안식, 희년, 그리고 노예 제도에 관한 규정을 개괄한다. 제25장의 규정들은 순종하면 복을, 불순종하면 '저주'를 가져오는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의 일부다. 제26장에서 '일곱 배'의 저주는 2,520년에 해당하며, 땅의 안식 규정과 노예 제도의 원칙이라는 분명한 문맥 속에서 제시된다. 제26장에서 그 징벌은 '내 언약과의 다툼'이라 불린다.

그때에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행하고, 너희의 죄들로 말미암아 너희를 일곱 번 더 벌하겠다. 그리고 내가 내 언약에 대한 보복을 행할 칼을 너희에게 임하게 하리니, 너희가 너희 성읍들 안에 모일 때에 내가 너희 가운데 역병을 보내어 너희가 원수의 손에 넘겨지게 하겠다. 레위기 26:24, 25.

문맥상 하나님이 "다투신다"고 하신 "언약"은 25장에서 앞서 언급된 그 언약을 가리킨다. "일곱 번의 징벌"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다툼"이라고 불리며, 여기에 딸린 "저주"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손에 넘겨질" 원수들에게 넘겨지고, 원수들의 땅에 들어가면(다니엘처럼) 이스라엘은 그 원수들의 노예가 될 것이라는 것이다.

모세가 레위기 26장을 기록했을 때 고대 이스라엘은 막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었고, 25장에 제시된 종에 관한 원칙들은 축복이나 저주를 가져올 것이었다. 고대 이스라엘은 희년에 관한 규례를 결코 지키지 않았고, 결국 다니엘이 '모세의 저주'라고 부른 것이 성취되어 북왕국과 남왕국 모두가 '일곱 때' 동안 흩어졌다.

애굽에서의 종살이로 시작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 관계는, 앗수르와 바벨론에서의 종살이로 끝났다. 북왕국에 대한 "일곱 때"는 1798년에 끝났고, 남왕국에 대한 "일곱 때"는 1844년에 끝났다. 두 "일곱 때" 기간의 기점은 기원전 742년에 이사야가 유다의 아하스 왕에게 선포한 65년의 예언으로 이사야 7장에서 제시되어 있다.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육십오 년이 지나면 에브라임이 폐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라. 또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이사야 7:8, 9.

이사야는 기원전 742년에 예언이 선포된 그때로부터 '65년 이내에' 북왕국이 무너질 것이라고 밝혔다. 19년 뒤인 기원전 723년에 이스라엘 북왕국은 앗수르 왕에게 포로로

잡혀갔고, 그로부터 46년 뒤인 기원전 677년에 바빌론 왕이 남왕국 유다를 포로로 잡아갔다. 이 65년의 예언은 여섯 가지 역사적 이정표를 제시한다. 첫째는 예언이 제시된 기원전 742년이다. 19년 뒤인 기원전 723년에 북왕국은 앗수르인들에게 포로로 잡혀갔다. 46년 뒤인 기원전 677년에 남왕국은 바빌로니아인들에게 포로로 잡혀갔다. 기원전 723년에 시작된 첫 번째 2,520년은 1798년에 끝났다. 이어 기원전 677년에 시작된 2,520년은 1844년에 마무리되었다. 1844년부터 그 예언은 전체 예언적 구조를 완성하기 위해 19년 더 연장되어 1863년에 이르렀다. 알파와 오메가가 예언적 구조의 시작을 표시할 때 19년을 표시했으므로, 그 끝에 이르기까지도 19년이 있어야 했기 때문이다.

고대 이스라엘은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었으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북왕국과 남왕국 모두 다시 종살이로 돌아갔다. 예언들은 고대의 문자적 이스라엘의 예언적 역사에서 현대의 영적 이스라엘로 넘어가며, 그리하여 모든 예언의 이정표의 주제는 종살이이다.

이사야서 7장의 예언은 기원전 742년에 이사야가 악한 왕 아하스에게 전한 것으로, 남과 북 사이의 임박한 내전이 예고되던 때였다. 아하스가 다스리던 남유다는 고대 이스라엘의 문자적 영화로운 땅이었다. 1798년에 성경 예언의 영적 영화로운 땅이 성경 예언의 여섯째 왕국으로서 통치하기 시작했다. 문자적 영화로운 땅을 향한 일곱 때가 1844년에 끝났을 때, 아하스 왕의 역사에서 그랬던 것처럼 임박한 내전이 있었다. 1844년까지 정당들이 분열하고 동맹을 맺는 혼란은 거의 완전히 두 부류의 정치적 성향으로 수렴되었다. 노예제 문제에 관해서는 민주당은 친노예제였고 공화당은 반노예제였다. 1798년부터 1860년에 내전이 시작될 때까지, 두 부류의 정당을 형성하는 과정은 정착되었다.

아하스는 문자적 영광의 땅을 대표했으며, 따라서 영적 영광의 땅을 예표했다. 아하스의 역사는 예언이 기원전 742년에 선포되었던 예언의 역사를 예표하며, 따라서 그 예언이 끝난 때의 역사도 예표한다. 초기 역사에서 열 지파로 이루어진 북왕국은 남쪽의 두 지파의 신적으로 세워진 정부에 항거하여 그 두 지파와 갈라섰다. 북쪽의 열 지파는 시리아와 연합을 이루었는데, 이는 남쪽 연합체와 시리아로 상징적으로 표현되는 한 세력 사이의 동맹을 예표한 것이다.

이 간단한 요약은 레위기 26장의 일곱 배가 순종에는 축복을, 불순종에는 종살이의 "저주"를 제시하는 언약적 약속임을 밝히고 있다. 북왕국과 남왕국은 종살이에서 해방된 하나의 나라로 함께 시작했지만, 결국 각자의 결말에는 다시 종살이로 넘겨졌다.

그 노예에 관한 예언들의 말미 65년은, 영적 영광의 땅에 있는 영적 이스라엘이 남과 북의 내전 한복판에 놓이는 것으로 끝났다. 그 내전의 적대 세력은, 반대편 왕국에 자리한 신에 의해 세워진 정부로부터 탈퇴하여 연합을 결성한 한 왕국이었다.

1798년부터 내전에 이르기까지, 공화주의의 나팔은 노예제 문제의 양측을 대표하는 두 부류의 정치적 적대자를 낳는 과정을 겪었다. 노예제의 관행을 계속하려 했던 친노예제 적대자들은 그 싸움에서 패했다.

1798년부터 내전에 이르기까지, 개신교의 뿔은 노예제 문제의 양측을 대표하는 두 부류의 종교적 대립자들을 만들어 내는 과정을 겪었다. 노예제에 관한 예언의 본래 이해를 유지하려 했던 노예제 찬성 측 대립자들은 그 싸움에서 패했다.

1863년에 공화주의의 나팔은 노예제라는 관행을 거부하는 데 성공했다.

1863년에 개신교의 뿔은 노예제에 대한 예언을 거부하는 데 성공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그 시대의 엘리아였던 밀러의 사역을 거부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또한 그들의 시대의 초석인 "모세의 맹세"도 거부했다. 그리하여 모세와 엘리아는 거부되었으나, 2001년 9월 11일에 다시 돌아왔다.

알파와 오메가이시며 경이로운 언어학자이신 그분은, '놀라운 계산자' 팔모니로서 친히 선포하신 '모세의 맹세'의 시간 예언 전반에 그의 신성한 서명을 기록해 두셨다.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정녕 굳게 서지 못하리라.